

전 세계 거장들의 극작품 한국에서 본다

국립극장 10월 30일까지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동국대 만해관 일대에서 전야제 퍼포먼스 펼쳐

동국대 만해관 앞 주변일대가 예술의 장이 됐다. 만해관 앞에서는 가상의 소년과 실제 소녀가 만나는 연극이 공연됐고, 명진관 건물 외벽은 미디어 캔버스에 LED조명으로 소녀를 태운 코끼리의 여행이 그려졌다.

국립극장(극장장 임연철)과 동국대(총장 김희옥)은 9월 7일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5주년을 기념한 전야제를 동국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배우가 등장하는 라이브 공연예술과 첨단 테크놀러지가 결합된 4D 퍼포먼스로 국가 간 문화교류의 장을 기념·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는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프랑스 체코 중국 스페인 인도 등 9개 나라의 대표적인 30여 개의 극작품을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인 프랑스 '상상병 환자'부터 영화로 유명한 '마지막 황제'의 중국 발레작품, 그리고 우리나라 '수궁가' '화선 김홍도' 이야기까지 다양한 극작품을 풍성하게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가장 눈에 띄는 공연은 개막작인 '수궁가'. 국립창극단은 9월 8~11일 창극의 세계화를 위해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수궁가'를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침 프라이어(Achim Freyer)에게 맡겼다. 막이 오르면 높이 3m의 치마 자락을 휘날리는 '마담 판소리(도장, 명창 안숙선)'가 등장한다. 그녀의 치마를 통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토끼와 별주부외에도 광대, 호랑이, 도사, 코라 등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연기하며 노래한다. 환상이 가득한 무대와 과장된 기법의 가면을 쓴

이 등장인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거나 지글링을 하는 등 관객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올해 해외초청작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프랑스 극작품 '상상병 환자'이다. '상상병 환자'는 세계 연극사에서 최고의 희곡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몰리에르의 작품으로 1673년 프랑스 초연 이후 2000여 회 이상 무대에 올려졌다. 17세기 당시 학설에만 치우친 의학과 의사에 대한 풍자를 다루고 있다. (10월 14~16일, 해오름 극장)

중국 국가브랜드 작품인 '마지막 황제'는 중국 라오닝 발레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합작한 대형 발레극이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3세 때 왕위에 오른 후부터 자금성을 떠나 최후 보통 국민이 되기까지 50여 년의 이야기를 130분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 드라마틱하게 무대화시켰다. (9월 20~21일, 해오름 극장)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하나는 18여개의 국내작품들. 무용, 연극, 음악,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다.

극단 드림플레이는 걸출한 입담과 긴장감 있는 구성으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말한다. '장석조네 사람들'을 통해 도시민들의 가난과 폭력성마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휴머니티로 표현한다. (9월 14~17일, 달오름 극장)

극단 마고는 우리 민족의 전통 설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 전통적 시각에서 '바리'라는 뮤지컬을 탄생시켰다. 20여 명이 넘는 배우들이 출연해 보여주는 스펙터클한 연기와 안무와 무대장치



①동국대 명진관 건물 외벽에 첨단 영상 퍼포먼스 미디어 캔버스가 펼쳐졌다. ②프랑스 극작품 '상상병 환자' 중 한 장면. ③중국 국가브랜드 작품인 '마지막 황제'

프랑스·중국·인도 등 9개 나라 30여 개 극작품을 2달 간 공연

에서 한국 뮤지컬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9월 21~23일, 달오름 극장)

퓨전극악 밴드 아나야는 전통민요, 판소리, 국소리 등 한국의 전통음악 중 '노래'에 주목해 한국 전통예술, 나아가 월드뮤직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오래된 선율과 노랫말을 대금 장

구 기타 건반 드럼으로 연주해 판소리 랩과 비트박스, 가요보컬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9월 24~25일, 별오름 극장)

이 밖에 국립극장은 10월 25~29일 폐막작으로 국가브랜드 공연 '화선 김홍도'를, 체코 연극 '마이크로 푸로스의 비밀'(9월 30일~10월 1일), 불가리아 민속 무용 '네버엔딩 스토리'(9월 23~24일), 벨기에 현대 무용 '파지나 비앙카'(10월 21~22일), 극단 드림플레이 '장석조의 사람들'(9월 14~17일) 등을 선보인다. (02)2280-4114

글=이은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문화부 찬불가합창곡 악보집 발간

쉬운 노랫말로 20여 신곡 수록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가 찬불가를 개발하고 한국불교 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가 제작을 맡아 2011 신작찬불가합창곡 악보집을 발간했다.



악보집은 기존 찬불가 노랫말의 틀에서 벗어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으며 불교문학 스님들과 노랫말 작가, 작곡가, 합창단 지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최영철 원로 작곡가를 비롯한 찬곡가 작곡에 매진해온 20명이 발간위원으로 위촉돼 새롭게 만든 찬불가 20여곡을 담아 악보집을 제작했다.

악보집에 실린 신작 찬불가는 불교용어 중심의 가사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찬불가와 달리 쉬운 노랫말로 친근감을 높였다.

신작 찬불가합창곡 개발은 불교 음악인들의 숙원으로, 불교 음악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불교 음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매년 문화부가 발간해 온 악보집은 불교음악 작곡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교합창페스티벌과 전국 불교합창제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찬불가 대중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화부는 "신작찬불가 합창곡이 불교합창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의 법회, 문화 행사 등 많은 곳에서 불려지기를 바란다"며 "종단 차원에서 불교음악의 미래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작찬불가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1~9/6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월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기도	법륜	정토
4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5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살
6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7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8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9	선어사전	해민	운주사
10	경전술집 (한 권으로 읽는 경전)	정운	조계종출판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깨달음의 돌을 던져라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
용정운 저 | 나우생각 펴냄
1만2800원

단순한 선과 색으로 표현된 카툰 하나가 우리의 잔잔한 일상에 돌을 던지며 말을 건넨다. 소중한 일상을 익숙하던 이유로 방치하지 않았는지, 일상 속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불교를 소재로 한 카툰리스트 용정운이 일상의 깨

카툰과 에세이로 엮은 진리

일상을 깨우는 작은 울림

텅 빈 마음자리, 내면의 평화 발견

달음을 에세이와 카툰으로 엮어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을 펴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들의 삶과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고뇌와 깨달음이 카툰 속에서 진한 향기를 전하고 있다. 카툰 속 주인공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방황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각 장마다 같은 주

제로 에세이와 카툰 한 편으로 구성돼 있다.

'나는 무엇인가' 편 에세이에서 용정운 작가는 이런 물음을 시시때때로 내 안에 던져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수행이란 결국 이것을 알기위한 지난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카툰에서는 스님이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가거나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씹어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심' 편에서는 기쁨, 슬픔, 성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며 그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것이다. 동시에 카툰에서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마त् 웃고, 화가 날 땀 소리도 치는 스님의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준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에세이를 통해 제시된 깨달음의 진리가 카툰을 통해 다시 한 번

쉽게 정리되고 있다.

카툰을 따라 '나는 무엇인가'를 되뇌어보면 자신의 텅 빈 마음자리와 내면의 평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 없이 보내던 일상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무거웠던 삶이 결국 '내려놓음' 하나로 가볍고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잊고 있는 지혜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다.

용정운 작가는 "이 책의 카툰이 독자들과의 일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바라보면 모든 게 특별하게 다가와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닌 내 존재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책에는 '불교TV'에서 방영된 32편의 카툰이 담긴 DVD가 함께 포함돼 용정운 작가의 카툰을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전장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년 오랜습씨 탕화불상에숙원 **갈상**

8각좌대**참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참보노불도배**

있는곳: 경북 경주시 서진동 한빛길 28번 14호
문의리미: 010-5595-8533
알리는곳: 054) 773-8533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천연연고비누 재료: 서사초, 홍남석화, 초승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천연연고비누 효과: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③ 사용방법: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④ 보관방법: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수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수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저우 체험잇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보험

①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②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③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④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토지 분석 전문가(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 강의 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